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5



전라남도
신안 홍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PHOTOSTORY :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4 호남약도, 픽업 오토바이, 섬 풍경

LIFESTYLE :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관광섬 홍도에서 빛이 된 원추리꽃

07 홍도산 해산물. 해녀 손으로 거둡니다

홍도 민속신앙, 당제

RESOURCES :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08 1월부터 12월까지, 홍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09 책으로 만나는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1980년)

바다생물 인문학 : 불락(發落魚)

PEOPLE :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 홍도 사진작가 김은길 님

13 홍도 주민 최일남 님

TRAVEL :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6 홍도 투어 가이드

18 홍도 섬 여행 명소

20 <기획 코너> 홍도 섬마을 건축기행

22 <특집 코너> 해상관광유람선 타고 홍도 한 바퀴!

NEWS & ISSUE :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24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섬 단어사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多島海海上國立公園

#신안

#흑산

#홍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신안 홍도

전남 서남해안과 1,700여 개 섬을 중심으로 지정된 해상국립공원이다. 신안·진도·완도·고흥군, 여수시에 걸친 우리나라 최대 면적의 국립공원으로 2,266.221km²(육지 291.023km², 해상 1,975.198km², 약 6억 8천5백만 평)에 달한다.

다도해의 해안과 섬은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상록수림과 과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과 기암괴석들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다.

신안 흑산·홍도(흑산군도), 신안 해안(비금·도초·우이도 등), 만재도, 진도 해상(관매·조도 등), 완도 해상(소안·청산·보길도 등), 고흥 해안(외나로도 등), 거문·백도지구, 돌산·여천지구(금오·연도 등), 팔영산 지구 등 9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공원은 국가관리 원칙에 따라 소관부서는 환경부이며,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22개(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관리하고 있다. 다도해는 1981년 14번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생업기술사전 - 어업1』, 2021

김은길, 『홍도 사계』, 2020

전라남도, 『호남약도(湖南略圖)』, 1965

전라남도,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 1980

정약전, 『자산어보(玆山魚譜)』, 1814

서유구, 『전어지(佃漁誌)』, 1820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섬 당제의 흔적을 찾아서』, 2020.

신안군, 「1004섬 신안! "섬 원추리 축제"를 개최한다.」, 2019.7. 보도자료 인용

도움 주신 분

신안군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홍도 사진작가 김은길 님

홍도 주민 최일남 님

홍도 주민 최성진 님

PHOTO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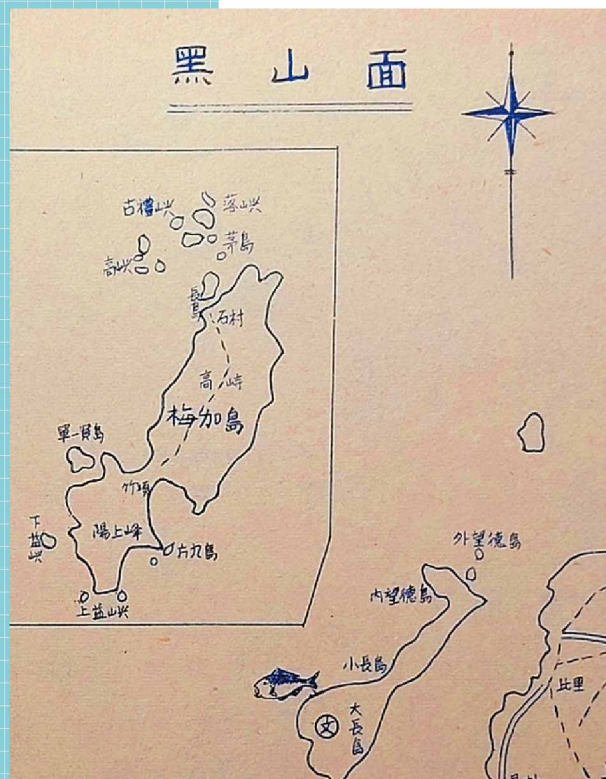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무안군 흑산면 홍도

홍도는 조선 후기 지도군(智島郡)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안군에 이속, 1969년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홍도는 **노을에 비친 섬이 붉게 보여 홍의도(紅依島)**, **바다 위에 매화꽃이 내려앉았다고 하여 매가도(梅加島)** 등으로 불렸다. 1965년 전남도청에서 제작한 『호남약도(湖南略圖)』에 소개된 정보를 살피면 마을 지명인 죽항(竹項), 석촌(石村)과 함께 산, 작은섬, 여(암초) 등 지리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먼저 섬 심부에 자리해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은 깃대봉(368m)은 그 형태가 누에고치를 닮아 고치(高峙)로 언급되어 있다. 이밖에 작은섬으로 방구도(현 방구여)와 모도(현 띠섬), 장도(현 진섬), 북쪽으로 고레여, 낙여, 고여 등이 지도상에 드러난다. 특히

장도였다가 진섬으로 지명이 바뀐 사례의 경우 지역 고유의 사투리가 반영된 점에서 흥미롭다. 전남지역에서는 ‘길다’를 ‘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호남약도(湖南略圖)
무안군 흑산면 홍도(1965년)



섬을 대표하는 교통수단

‘픽업 오토바이’

- #신안군
- #흑산면
- #홍도
- #픽업
- #오토바이
- #교통수단

“부릉부릉~!”

첫발 내딛는 여행자를 먼저 반기는 건 섬 유일의 교통수단인 픽업 오토바이. 짐가방으로 무거웠던 손님 마음을 싣고 굉음 내며 섬마을 골목을 바삐 오른다. 인도에서 흔히 만나는 ‘릭샤’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닮아 이국적인 모습을 자아내는 이곳은 대한민국 홍도!



마을 앞 짚지(몽돌 해변)에서 만난 목선(홍도2구)



홍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건조 중인 우럭 건정



그윽한 햇살이 가득한 홍도의 아침



기암괴석 위에 웅기종기 모여 자리한 건물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시웃 Vol 35 ● 신안 홍도

홍도 원추리꽃 ◀

관광섬 홍도에서 빛이 된 원추리꽃

해마다 신안군에서는 섬에서 자생하는 꽃을 주제로 '섬꽃 축제'를 개최한다. 매년 7월에 접어들면 홍도에는 원추리꽃이 피어나는데, 이 시기에 맞추어 축제가 열린다. 식물명이 별도로 존재할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홍도원추리'는 다른 원추리에 비해 꽃이 유난히 크고 아름다우며 질감이 곱다. 관상 가치가 뛰어나 고유한 유전 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원추리꽃은 주민 생활사와 밀접한 식물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 보릿고개로 불리던 시절 독초였던 꽃을 활용, 싹이 나면 물에 담가두었다가 독을 빼고 식용으로 썼다. 또 뿌리는 다년생이지만, 잎이 일년생이다. 싹이 돌아 꽃이 피고 난 후 날씨가 추워지는 12월이면 잎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데, 이 무렵 줄기를 활용하여 새끼로 꼬아 짚신이나 멍석, 바구니, 어선 밧줄 등을 만들어 썼다.

▶ 홍도 원추리꽃 벽화



LIFESTYLE ●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홍도산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 명소 '해녀촌'

먼바다 섬에 속한 홍도에는 다양한 해산물이 나는데, 이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홍도여객선터미널 선착장과 인접한 노천 공간에 등지를 튼 '해녀촌'이다. 해가 질 무렵 해녀로 활동하며 점포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저녁을 맞아 굳게 닫힌 노천 텐트의 문을 연다. 문틈으로 백열등 불빛이 밤바다를 밝히는 모습이 장관이다. 아담한 크기로 제작된 수조에 가득 담긴 해삼과 전복, 뽕소라, 멍게 등이 꾸물꾸물 움직여 가히 수족관을 연상시킨다. 이 가운데 삼삼오오 모인 여행객이 저마다 자리를 찾고 이야기꽃을 피우면 비로소 밤이 시작된다.



▲ 해녀촌 야경

최근에는 홍도산 해산물을 음식뿐만 아니라 특산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홍도 2구 석촌마을에서는 불을 지핀 아궁이 위로 큰 솥을 얹어 뽕소라를 삶는 작업이 한창이다. 알맹이를 골라내어 일정한 무게로 나누어 담은 상품은 그 품질과 맛을 인정하는 소비자들에게 곧잘 팔린다. 봄부터 가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는 해녀 어업은 바람의 세기나 조류, 물 때 등 바다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거칠고 고된 생업 활동으로, 수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해녀 어업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바 있다.



▲ 뽕소라를 삶는 주민

홍도 민속신앙, 당제

홍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민 공동체 중심의 민속신앙인 '당제(堂祭)'가 마을별로 거행됐다. 홍도 1구의 경우 지금의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뒤편에 자연 조성된 당숲(상록수림) 안에 당집이 자리한다. 매년 1월 27일 무렵 거행된 당제는 주민 의견으로 선출된 제주(祭主)가 목욕재계 후 참여했다. 홍도 2구에도 당집과 당숲이 있는데, 깃대봉 탐방로로 접어드는 마을 초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목조로 지어진 한옥 제당 두 채가 난대성 수목으로 조성된 숲에 조성되어 있다.

홍도는 당할머니로 대표되는 여신(女神)이 중심에 놓여 있다. 당제가 거행된 농 · 어촌 대다수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체로 산과 같이 높은 곳에 당할머니, 마을이 있는 아래쪽에는 당할아버지가 모셔진 경우가 많다.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내린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민속신앙 영역에서 만큼은 여성이 우선시되는 흥미로운 문화성이 발견된다.



▲ 홍도 당집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농사월력'

1월부터 12월까지, **흑산도** 밭과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해산물

1월 ~ 12월	3월 ~ 4월	9월 ~ 11월	10월 ~ 12월
미역 우뚝가사리 우럭 장어	돔 빨소라 전복 해삼	노래미 볼락	고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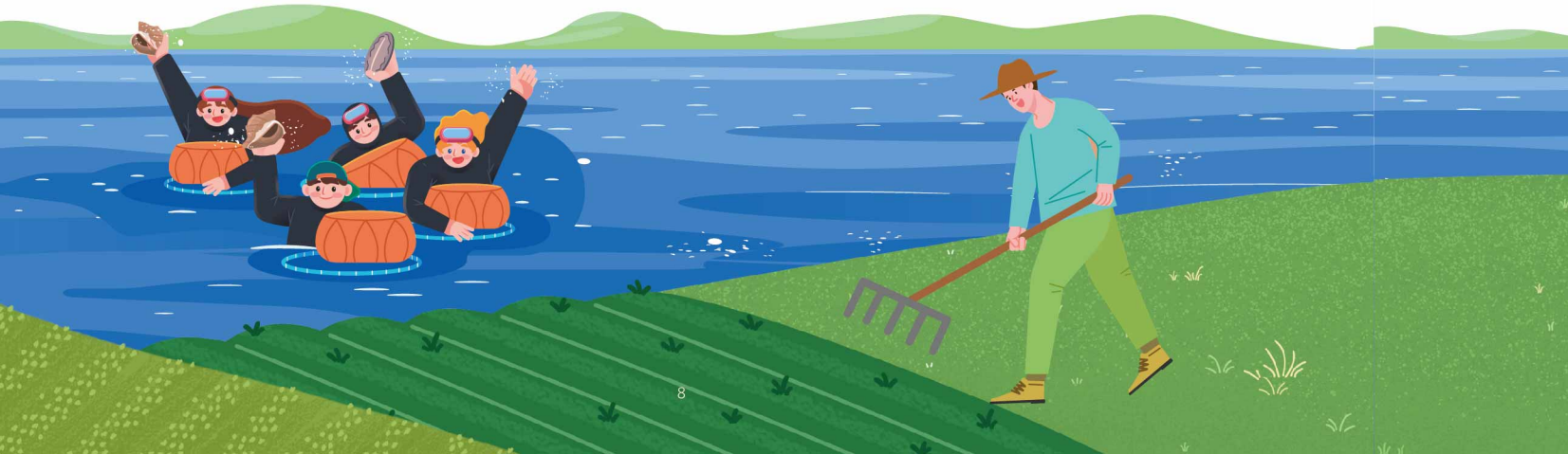


농작물

1월 ~ 4월	2월 ~ 5월	3월 ~ 5월	3월 ~ 6월	3월 ~ 8월
돈두나물 (털머위) 취나물	대파	마늘	상추	방풍나물

" 홍도 방풍나물 "

홍도에서 나는 방풍나물은 봄부터 자라 수확이 시작되는데, 주민에게 더없이 좋은 효자 상품이다. 섬을 찾은 여행객들은 홍도 1구 주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밑반찬으로 만날 수 있는데,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 인기 만점이다. 의료 서비스가 열악했던 예전에는 주민들이 방풍잎과 뿌리를 채취해서 약으로 쓰기도 했다. 허리나 다리가 아프면 술로 담가 먹기도 했는데, 만병통치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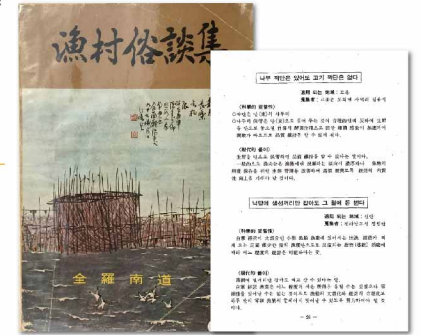


책으로 만나는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1980년)

낙망에 생선꺼리만 잡아도 그 철에 돈 번다

▲ 통용 지역 / 수집자(蒐集者) : 신안 / 전라남도청 정병만



과학적 타당성

자가 경영이 대부분인 소형 어선 어업에 있어서는 출어 경비가 적게 드는 반면 근소한 양의 어획만으로도 반복되는 투망(낙망) 빈도에 따라 어느 정도 경영이 가능하다는 뜻

현대적 풀이

낙망에 찬거리만 잡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

자가 경영 어업은 어느 정도 적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영세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어선의 대형화와 경영 합리화 등으로 하루 빨리 영세 어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바다생물 인문학

볼락(發落魚)

금처귀(黔魚) - 볼낙어(薄脣魚)

볼낙어는 모양이 금처귀를 닮았으나 크기가 조기 정도이다. 발락어(發落魚)는 뽕낙어 무리에 속하며, 색은 검푸르고 잎이 작다. 낮에는 바다에서 놀고 밤에는 석굴(石窟)로 들어온다. 맛은 금처귀와 같다. 여기서 금처귀는 '검어', '금어'로도 불리는 물고기를 말한다.

▲ 『자산어보』중에서

볼락(赤魚)

조선 연안에서 산출되지 않는 곳이 없지만, 가장 많은 곳은 남해 근해의 섬 사이이다. 강원·함경 양도 및 서해안에 이르면서 점차 감소한다. 산란기는 겨울부터 봄이며,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조선인은 이 물고기를 좋아해서 날로 먹지만 때로 자연 건조하기도 한다.



어장은 경남 마산에 속한 섬 지역과 육지도, 안도, 시산도, 거문도, 제주도, 어청도 등 근해 지역이다. 어기(漁期)는 봄·여름에 걸치나 남해안에서는 5월부터 8월, 8월부터 10월이다. 어구(漁具)는 조선 사람의 경우 외줄낙시로 잡는다.

▲ 『한국수산지』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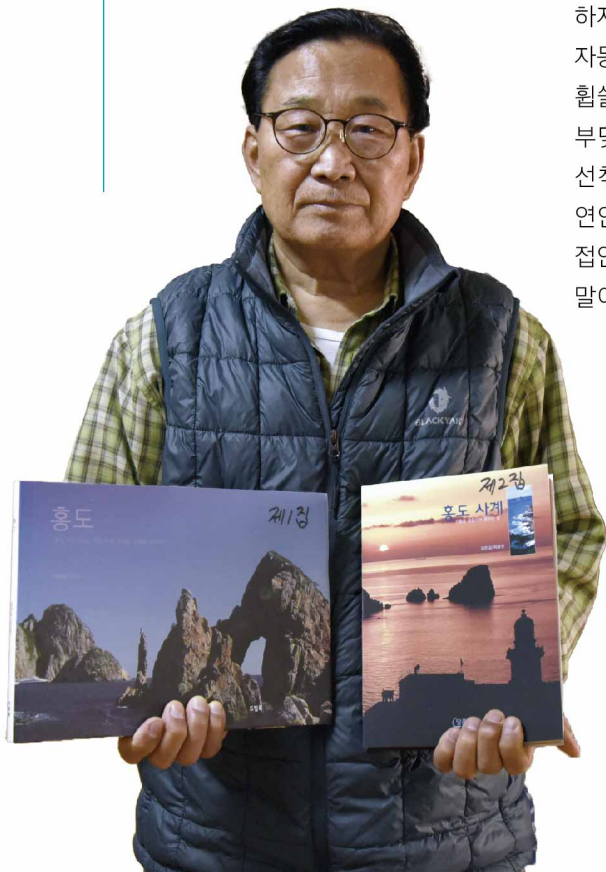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Q1 평소 홍도를 찾는 여행객이 석촌마을까지 오는 경우가 많은지?

A1 홍도여행객터미널이 있는 홍도 1구에 닿은 여행객이 이곳까지 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등산이나 트레킹과 같은 생태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늘었지만,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구에서 2구로 오자면 도보로 깃대봉을 넘어야 한다. 정상에 이르는 능선이 완만하지만, 마을에서 재를 넘는 경사가 급해 힘들다. 산을 넘나들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1, 2구 마을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안으로 길을 내면 좋겠다. 선박은 해가 뜨는 시간 동안 날씨가 좋아야 운항할 수 있지만, 사람은 밤낮으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해안 쪽으로 길을 내면 좋겠다.

하지만 홍도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 몇 년 사이 도선이 생겨 1구와 2구를 오가기도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자동차는 주차하면 끝이지만, 배는 정박시켜 두더라도 파도에 휩쓸리거나 떠밀리는 한계가 있다. 들쭉날쭉한 해안 암초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파손되어 수리비가 많이 든다. 2구 마을 선착장을 보면 항만시설이 작은 포구에 불과한 정도이다. 연안항으로 지정된 1구와는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선박을 접안시키기 쉽지 않다. 항구를 함께 지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홍도 섬 사진작가
김은길 님

Q2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모습이 달라졌을 텐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A2 이 질문은 섬마을 주거 문화 변천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섬 연구자를 만나면 “처음에 사람들이 섬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누군가 살기 위해 섬을 찾았다면, 과연 섬에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궁금해하지 않을까? 내륙지역과 다르게 여기에는 돌과 흙, 식물, 나무 정도가 있었다. 사람이 살려면 집이 필요한데 건축 자재로 쓸만한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모으고 흙을 이겨 진흙으로 만들어 죽담을 치고 쌓았다. 그리고 나무를 썬서 서까래를 올리고 이엉을 엮어 지붕을 만들었다. 끝으로 방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돌을 활용해서 구들장을 놓는다. 그러다 좀 더 활용도를 높여 소나 돼지를 치는 마구간을 짓고, 집으로 들어치는 바람을 피하려고 돌담을 쌓았다. 마을에 있던 옛집들은 돌담이 지붕만큼 높았다.

예전에는 지붕을 올리는 재료로 벗짚 대신 띠를 썼다. 연중 마을에 센 바람이 불어오면 벗짚은 1년쯤 버티지만, 띠는 2년을 너끈히 버텼다. 그래서 주민들은 수명이 오래가는 지붕 재료를 쓰려고 일부러 띠밭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 한정된 밭에서 나는 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끼리 1년씩 번갈아 가며 재료를 썼다. 예를 들어 주민 A가 띠를 한 번 써서 일 년을 지내면 다음 주민 B가 키운 띠로 다음 해를 보내는 식이다. 이를 번갈아 반복하며 부족한 재료를 충당했다. 요즘처럼 줄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지붕을 고정시키려 산에서 나는 ‘딱꿀’이란 넝쿨식물을 활용했다. 이처럼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생활문화를 꽃피우는 과정을 면면히 살피는 게 ‘섬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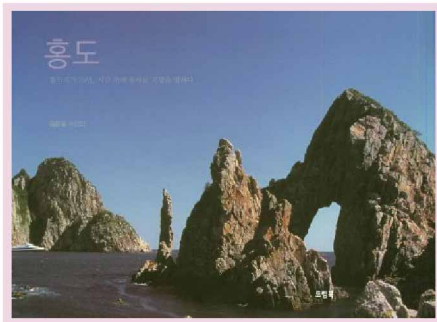
Q3 마을에 역사성이 돋보이는 석조 교회가 있던데?

A3 마을 상단부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1960년에 섬에서 나는 돌과 자재로 지어져 교박 64년째에 접어들었다. 왜 교회당을 돌로 지었을까? 단순히 보기 좋게 지으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풍선이나 돛단배가 한 척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만큼 바다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이었다. 육지에서 자재를 싣고 올 배가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조달해야 했다. 그렇다고 돌로만 지을 수도 없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시멘트를 육지에서 공수해 왔고, 모래는 홍도 등대 아래 ‘땅넘이’라는 곳에서 구했다. 물이 많이 썬는 사리때에만 가능한 곳이라 인력이 충분해도 한정된 시간 안에 구해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교회를 짓는 데 교박 2년이 걸렸다. 건축 재료를 옮기는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비단 교회 신도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머리에 돌을 올려 엮거나 등짐으로 저 날랐다. 그래서 정수리 주변으로 머리털이 없어지기도 하고 허리가 굽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처럼 희생·봉사하는 간절함이 그릇을 채워 교회가 완성됐다. 믿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시절이었다.

Q4 홍도에서 지내며 관한 섬 사진집을 낸 걸로 아는데?

A4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군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육지에서 지내다 서울로 상경하신 어머니를 모셔 고향인 홍도로 귀향했다. 내 나이 서른여덟 살 무렵이었다. 어느덧 귀향한 지 사십여 년이 훌쩍 지났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애향심이 깊어져 관광 분야나 향토·민속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홍도 섬 사진집을 제작하게 됐다. 처음 1집은 사진가 입장에서 홍도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출판했다.

그런데 사진마다 부연 설명이 부족했다. 아쉬움이 컸던 탓이었을까? 일 년 동안 자료 수집과 함께 사진 추가 촬영을 병행해서 좀 더 보충한 끝에 두 번째 사진집을 출판했다. 이 사진집에는 홍도에 관한 역사나 교육·사회·문화·생태 등 다양한 분야별 정보가 반영됐고, 홍도의 사계(四季)가 사진으로 담겼다. 아이들이나 학생과 더불어 어른들에게 홍도를 이해할 수 있는 섬 교과서로 짓고 싶었다. 언젠가 사진집이 지역사회에 좀 더 알려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남도청을 찾은 기억이 있다. 홍도는 신안군, 나아가 전남에 속한 섬이다. 지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Q5 스스로 이름을 걸고 책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심경이었는지?

A5 사진집 제작에서 가장 큰 장벽은 돈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어찌 책을 냈는데 앞서 언급한 목사님 도움이 컸다.

2집을 준비하는 기간에 디지털카메라를 새로 사서 사진을 촬영했고, 다양한 문헌 자료를 찾아 조사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초등학교나 공공도서관과 같은 교육·문화 시설에 두, 세 권씩 기증하고 싶다. 지금도 수십 년간 홍도를 촬영한 사진과 자료를 수집한 과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하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더는 사진 촬영이 어렵게 됐다. 이십여 년 전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은 적이 있는데, 가는 길이 이토록 험난했는지 미처 몰랐다. 오가지 못할 험지에 갇혀 위험에 빠졌다. 다행히 상황을 극복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다시는 사진 작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건 눈(雪)이 귀한 홍도에서 설경 사진을 몇 컷이라도 찍어놓은 것이다. 생생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 놓은 자료가 바로 '사진'이다. 나중에 홍도 설경 사진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Q1 홍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A1 홍도에서 나고 자라 학교와 군대만 육지에서 다니고, 인생 전반을 섬에서 지냈다. 지금 운영 하는 하나로마트와 접한 광성장 여관이 태어난 자리다. 군 제대 후 귀향하여 3년 정도 형님 사업을 도왔는데, 해수욕장 탈의실, 샤워장 관리, 횃집 운영 등이었다. 이와 함께 마을 이장처럼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섬을 돌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건 본래 계획대로 섬 대신 육지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평소 부지런한 성격이니 어디서나 잘 지냈을 텐데 말이다. 꿈이 서울 동대문·남대문 시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거였다. 이 시장들은 세상 빛을 보는 수많은 상품이 들고 나는 대표적인 곳 아닌가. 가진 것 없이 시작하더라도 성실히 지내면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가 될 것으로 믿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런 꿈은 꾸는 게 자유라 할지라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감했다. 그렇게 섬에 터를 잡은 후 슈퍼마켓을 15년 정도 운영하다 농협에 매매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이 섬을 찾았으니 농협에서 탐낼 만했다. 10년쯤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연쇄점으로 운영했는데, 경영난으로 어려워져 재차 매매로 이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내가 되찾았다.

대개 사람들은 슈퍼마켓 운영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손이 건디지 못할 만큼 고된 일 중 하나다. 과자부터 캔·플라스틱 등 크고 작은 상품 하나하나에 몇 번씩 손이 가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점을 모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물건들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가게 진열대에 놓이는지이다. 여행객들이 스스로 준비해 오면 가격 면에서 저렴할 수 있겠지만, 냉동식품은 어떻게 할까? 슈퍼마켓에서는 전기를 들여 냉장·냉동 시설을 갖춰놓고 저장해야 하니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섬이라는 공간이 바다에 가로막혀 있어 물류 유통이 원활한 내륙지역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까닭에 섬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취하는 자체가 행복이다. 반품할 수 없는 물품이 생각보다 많은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반송품이 생기면 택배 차량 외 쾌속선에 실어 보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역으로 비싼 운임을 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홍도 섬 주민

최 일 남



Q2 홍도가 언제부터 관광섬으로 주목받았는지?

A2 1970년대부터 섬으로 많은 국민이 몰릴듯이 몰려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많았는데, 홍도와 관련된 문학 작품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면서부터였다. 그 시절 섬에는 초가집이 많았고, 함석지붕을 얹은 가옥은 몇 채 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나 식당이 없어 여행객들은 큰 배낭을 지고 와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하곤 했다. 모두 맑고 청정한 해안과 바다를 곁에 두고 감탄해 마지않던 모습이 떠오른다. 포구나 항만시설도 변변찮던 시절이라서 물류 유통이 활발치 않아 생활 도구를 비롯한 온갖 물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썼다. 원시(原始)에 가까운 생활상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으로 넘치는 나날이기도 했다.

그간 주민 편의를 위해 홍도항에 항만시설이 들어선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빠르게 외부 문화가 유입되고 생활 편의가 개선되면서 좋아졌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홍도 해안은 몽돌로 가득한 ‘찍지 마당’으로 유명했는데, 콘크리트에 뒤덮이면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1980년대에 이르러 산업 전사들이 들어왔다. 항만이나 포구와 같은 인프라 확충이 주된 목적이었다. 시설이 좋아지면서 해상 교통이 발달했다.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풍선(風船)이 전부였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물때를 기다려 펄럭이는 돛이 힘을 받으면 비로소 사공이 손에 쥔 노와 키를 바빠 움직이며 나아갔다. 1970년대에는 통통배, 1990년대 초 무렵엔 ‘쌍동선’이 투입됐다. 바야흐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속도가 바닷길을 가르는데’가 도래했다.

Q3 요즘에도 홍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A3 예전만 하더라도 국민이 손꼽는 관광섬으로 이름났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다. 또 시대 변화로 다양한 여행 문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전히 자연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지만, 젊은 청년들의 경우 새롭게 개발되는 여행 명소를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그간 홍도에 왔던 여행객들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꼭 한번 와야겠다고 마음먹은 경우가 많아 장년층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1965년 무렵 국가에서 홍도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데 이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했다. 그래서 생태자원 관리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 덕분에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섬으로 알려졌다. 요즘만 보더라도 개발이라는 광풍에 휩쓸리는 곳은 황폐화되기 일췌지만, 이곳은 보존이 먼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섬에 처음 입도한 선인들이 정착한 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대대손손 지내오고 있다. 홍도는 보기보다 면적이 넓어 여행할 만한 코스가 몇 개 있다. 먼저 홍도 1구를 돌아보고 유람선에 오르는 경우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깃대봉 탐방로를 따라 홍도 2구에 이르렀다가 중간에 기항하는 유람선 또는 도선을 타는 경우다. 도선은 사전에 주민 요청이 있으면 부정기적으로 운항한다. 여행객도 이 틈에 동행할 수 있다. 홍도 유람선은 매일 하루 두 번씩 운항한다.

Q4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불편함은 없는지?

A4 개발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일반적인 시설을 짓는 조차 상상하기 어려워 서러움이 컸다, 국가가 국민 생활을 제약한다면 이를 보상해 주는 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홍도는 한반도에 속한 작은 섬이자 끝 섬으로 영해를 지키는 지점에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은 국가에 속한 영토가 아니라 군사 지역이다. 민간인을 대신해서 군인이 주둔하는 것뿐이지 국민이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영토가 아니다. 대다수 주민이 고령층이다 보니 언제까지 관광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간 국가에서 섬을 통제·관리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주민 불편이 적지 않았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민·관이 협력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사는 섬이 우선 아닐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은 사람 손을 타지 않아 자연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도리어 생태자원 다양성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양한 수종에 이르는 나무들을 화목 연료로 쓰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숙아주니까 관리가 활발히 이뤄졌다. 예를 들어 유난히 빨리 자라는 나무를 관리하면 키 낮은 식물이 그늘 피해 없이 성장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놔둔 결과가 어떤가?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씨앗만이 무럭무럭 자라 땅을 점령해 버렸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람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요즘 화두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변화에 맞춰 어떻게 인식하고 적응하는가이다. 더 이상 주민이 섬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남을 게 아니라 여느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안정된 생활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신안군 홍도 투어 가이드



홍도 식당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광성횃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1-18	061-246-1122
광주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7-2	061-246-3729
금성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길 산20-3	061-246-3800
남문펠리스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1-5	061-246-2005
대한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1-15	061-246-3757
바다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7-1	010-2603-5151
새천년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0-1	061-246-4800



홍도 숙박업소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광성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2-9	061-246-3748
그린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260-1	061-246-2565
금성장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3-1	061-246-3836
금수장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7-13	061-246-3795
남문파크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1-5	061-246-2005
대성장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0-5	061-246-2728
동백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30	061-246-2489
로얄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7-2	061-246-3837
비치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0-5	061-246-3743
새천년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0-1	061-246-4800
서해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1-3	061-246-3764
석화장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9-4	061-246-3730

홍도 일반현황

가구·인구	256가구·439명
면적	6.630km ²
해안선 길이	19.7km
주요 관공서	홍도원추리정원 관리사업소, 우체국 육·해경 출장소,내연발전소, 홍도 등대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선유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60-2	061-246-3708
섬사랑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0-2	061-246-5100
유성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1-13	061-246-4300
천사호텔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65-1	061-246-3758
청해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9-1	061-246-4848
해인산장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49-2	061-246-2600
홍도회집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62-6	061-246-4113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선유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60-2	061-246-0010
섬사랑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0-2	061-246-5100
유성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1-6	061-246-3723
윤일장여관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2	061-246-3731
1004호 호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65-1	061-246-3758
킴스캠프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1-1	061-246-3719
탐아일랜드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1-1	061-246-7777
하나로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2-9	061-246-2197
해인산장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49-2	061-246-2600
홍도장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2-9	061-246-2500
엘도라도모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10-6	061-246-2500
남문펠리스호텔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1-5	061-246-2005

TRAVEL ●●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홍도 여객선 운항 시간표(쾌속선)

항차	목포항 → 홍도		홍도 → 목포항		운항선박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07:50	10:20	10:30	13:00	뉴-골드스타
2	12:30	15:00	15:10	17:40	뉴엔젤호

- * 상기 시간은 조석 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 목포시 해안로 182
 - 홍도연안여객선터미널 :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65-2
 - 문의 : (주)남해고속 : 061-244-9915(짜수일만 운항)
(주)동양훼리 : 061-243-2111(홀수일만 운항)
 - 소요시간 : 160분
 - 운임 : 목포 → 홍도 (성인 1인 49,300원) * 차량 선적 불가



홍도 유람선 투어

섬을 한 바퀴 돌며 33곳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홍도 유람선 투어

- 가 격 28,000원
- 탑승시간 약 2시간~2시간 30분
- 운항시간 07:30, 12:30 / 1일 2회

* 운항시간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 061-246-2244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홍도 섬 여행 명소

● 깃대봉 탐방로

‘깃대봉’은 봉우리가 마치 깃대 모양으로 이루어져 이름 붙여진 최고봉이다. 덩굴사철과 식나무, 동백림 등 다양한 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생태 가치가 크다. 1965년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2002년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산림청이 지정하는 100대 명산에 포함됐다. 깃대봉에는 산행을 즐길 수 있는 탐방로 이외에 홍도만의 아름다운 생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있다. 홍도 1구에 자리한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와 홍도내연발전소 사이에 난 트래킹 코스, 양산봉(321m) 탐방로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 구간에는 일몰 전망대와 원추리 정원 등 숨은 명소가 분포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방문하면 좋겠다. 참고로 깃대봉 탐방로를 따라 1구에서 2구를 왕복하면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찾아가는 길. 흑산면 홍도리 산17(정상 위치)



● 홍도 등대&원추리꽃 산책로

홍도 2구에 있는 홍도 등대는 섬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이자 여행 명소이다. 1931년 지어져 올해로 94년째인 등대는 일제강점기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 외에 중국 진출을 위한 자국 함대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군사 목적 등으로 활용됐다.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 불빛은 20초에 3번 반짝이며 약 45km 거리에 있는 선박까지 불빛을 전달한다. 등탑 높이는 10m로 높지는 않지만, 보통 원형으로 만들어진 다른 등대와 달리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내부에는 등탑으로 올라가는 주물 사다리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등대는 홍도 여객터미널에서 깃대봉 탐방로를 따라 이르는 방법과 별도 비용을 내고 홍도 2구를 왕복하는 도선, 유람선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 참고로 2구 석촌마을에서 등대로 나 있는 해안에는 원추리꽃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찾아가는 길. 흑산면 홍도2길 5



● 홍도마을 몽돌 해변

홍도 1구에 있는 몽돌해수욕장은 길이 600m, 폭 70m의 규모로, 고운 모래가 반짝이는 여느 해변과 달리 둥근 몽돌이 가득한 곳이다. 홍도를 구성하는 암석은 대부분 사암과 규암으로, 해식작용으로 떨어져 나온 바위 조각들이 긴 세월 동안 파도에 쓸려 둥근 조약돌로 다듬어졌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두른 기암 병풍 덕분에 운치 있는 풍경이 일품이다. 해수욕장 앞에는 해안선을 따라 일렬로 식당가가 자리하는데, 맑고 깨끗한 바다를 바라보며 홍도에서 채취한 해산물과 물고기를 활용한 바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사람이 붐비는 시기에는 자리가 동나기 일쑤이니 여행 전 사전 예약하는 게 좋다.

찾아가는 길. 흑산면 홍도리 산28-1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기획코너



홍도 섬마을 건축 기행



1. 천주교 홍도공소

‘공소(公所)’는 사전적 의미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아 미사가 집전되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이에 교우들의 본당신부를 대리하는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성찬 전례가 빠진 미사 형식의 공소예절이 행해진다. 홍도에는 1, 2구 각각 공소가 한 곳씩 있다. 그런데 1구 공소는 벽체에 몽돌이 포함된 석조 건축 양식으로 형태 면에서 독특한 모습을 지닌다. 이처럼 몽돌이 건축 자재로 활용된 사례는 비단 홍도뿐만 아니라 흑산도 진리·사리 외에 다물도 등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몽돌은 주민들에게 익숙하게 눈에 띄었고, 그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쉽게 운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축 재료로 각광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침 무렵이면 물안개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풍경이 연출돼 사진으로 담기에 좋다.

찾아가는 길. 흑산면 홍도1길 21

2. 홍도분교

홍도에서 가장 높은 산, 깃대봉으로 오르는 초입에 자리한 홍도분교는 흑산초등학교에 속한 교육 시설로, 그간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 왔다. 1949년 6월 12일 홍도공립국민학교로 개교한 (현)홍도초등학교는 올해로 76년째에 이르는 유서 깊은 마을 학교이다. 이 학교는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마을 뒤편 ‘목’에 위치하여 유난히 바람을 잘 탔다. 이에 주민들이 바람을 막기 위해 ‘우실이담’을 쌓기도 했는데,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최근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신안군과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등의 노력으로 초등학생 6명이 입학, 오랜 섬 학교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찾아가는 길. 흑산면 홍도1길 53



3. 홍도성결교회

홍도는 먼바다에 속한 섬 가운데 일찍이 개신교가 뿌리내린 곳으로, 1950년 홍도 2구 석기미마을에 세워졌다. 유달리 이곳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작고 아담한 크기지만, 섬에서 나는 돌과 모래 등을 활용했고, 올해로 74년째에 이르고 있어 역사·문화 가치가 크다. 마을 주민 가운데 일부 신도가 예배에 참여한다. 석조 양식의 건축미가 돋보이니 마을을 방문하면 꼭 찾아보길 권한다. 특히 교회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지점에 자리하여 마을과 바다 등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망대로 손색이 없다. 이와 더불어 교회 옆에는 1955년 8월경 마을 동네 주민들의 성원으로 문을 연 신홍초등학교가 있다. 학교를 따라 데크 보행로를 따르면 홍도 등대로 이어지니 산책 코스로 즐겨도 좋겠다.

찾아가는 길. 흑산면 홍도리 59-6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특집코너 홍도 해상관광유람선 타고 섬 한 바퀴!



항차	운항시간	운항 코스(홍도 10경)	승선요금
1	07:30 ~ 09:30	홍도항 → 남문바위 → 실금리굴 → 석화굴 → 탐섬 → 만물상 → 칠형제바위(슬픈여) → 부부탑 →	성인 1명 기준 28,000원
2	12:30 ~ 14:30	독립문 → 거북바위 → 공작새바위 → 홍도항	

※ (주)홍도유람선업협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 061-246-2244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1 전남 섬발전지원센터 × 광주지방기상청, 섬 관광객들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 개선사업 박차!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섬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광주지방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전남 가고 싶은 섬 해양관광 기상융합서비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월경 1차 정보사용자 협의회를 통해 서비스 추진계획을 공유, 6월 말에는 2차 정보사용자 협의회 및 중간 보고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과 미래 추진 업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센터에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관광자원 현황 조사를 지원하고, 섬코디네이터 설문 및 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논의해 왔다. 앞으로 두 기관은 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가고 싶은 섬 신안 고이도, 제주도 선진사례를 배우고 오다

6월 26일부터 28일, 2박 3일에 걸쳐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된 신안 고이도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도 선진지 견학 교육이 이뤄졌다. 고이도 주민들은 섬 전역에 꽃을 심어 ‘갯국정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 한림공원과 해리공원을 방문했다. 동굴을 비롯한 동·식물 등 다양한 생태자원이 분포하는 드넓은 지역에서 정성껏 관리되는 모습을 학습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견학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김출금 씨는 “우리 고이도도



예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후 주민들은 기상 악화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릉 외갓집 공동체를 방문, 마을 협동조합 우수사례 학습하는 데 이어 세화마을 이장님이 주관하는 강연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협업해서 일군 ‘질그렁이센터’ 설립 사례를 접했다. 박모두 이장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협동해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면서 전라남도, 신안군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올린 담당자 등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고이도 주민과 전남도·신안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번 견학을 통해 성공적인 가고 싶은 섬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여수시 손죽도·연도·대항간도·송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추진 여수시 점검회의 개최

6월 11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추진에 관한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손죽도·연도·대항간도·송도 등 여수지역에서 활동 중인 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장, 사무장을 비롯한 전라남도·여수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당 사업추진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특히 2017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된 손죽도의 박근희 추진위원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해당 사업 후 지속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히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민·관 이 함께 가고 싶은 섬 사업에 관한 문제 인식 및 해결을 위한 노력 활성화에 긍정적인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섬을 빛내기 위해 청년들이 나섰다.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4개섬 리더들을 알리다

6월 22일부터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리더워크숍이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지역을 비롯하여 해외 5개국에서 온 8명의 청년과 함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사무국 관계자가 모였다. 참석자 가운데 국내외 청년들은 캠프에 참여할 25개국·100여 명의 청년을 이끌 캠프 리더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다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청년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이해와 리더 역할 인식 기회를 갖고 참가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기소개 외에 아이스 브레이킹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제4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홍보 영상을 시청, 지난해 참여하여 활약했던 캠프 리더들이 겪은 경험 지식도 공유했다.

특히 국내 섬 관련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전남의 섬’을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다. 이 강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전남



섬 만들기와 섬 전통·문화 가꾸기 등을 논의,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진행되어 참석자로 하여금 폭넓은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글로벌 아일랜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더불어 섬학교·주민 단체와 연계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계획이다. 오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신안군 도초도·비금도·하의도와 진도군 상·하조도·나배도 등지에서 1차로 개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완도 소안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여수 금오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